

40년 동안 꾸준히 걸어온 인제의대, 미래를 향한 새로운 JUMP!



# 제8회 이태석기념심포지엄

The 8<sup>th</sup> Father John Lee Taeseok  
Memorial Symposium



| 일시 | 2019년 5월 27일(월)  
15:30 - 17:30

| 장소 | 인제의대 1층 강당

| 주최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 이태석

李泰錫, Fr. John Lee Taeseok

의사, 살레시오회 수도사제

1962년 9월 19일 - 2010년 1월 14일

- 1962. 9.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출생
- 1975. 2. 천마초등학교 졸업
- 1978. 2. 부산대신중학교 졸업
- 1981. 2. 경남고등학교 졸업
- 1981. 3.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 1987. 2.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88. 2.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턴 수료
- 1991. 4. 육군 군의관 전역(대위)
- 1991. 8. 살레시오회 입회
- 1994. 1. 살레시오회 첫 서원
- 1995. 1. 서울특별시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사목실습
- 1996. 2.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수료
- 1997. 1.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유학
- 1999. 8. 아프리카 남수단 와랍주 톤즈(Tonj) 첫 방문
- 2000. 4. 살레시오회 종신서원
- 2000. 6. 부제 서품,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신학부 졸업
- 2001. 6. 사제 서품
- 2001. 7. 전남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임상연수
- 2001. 12. 남수단 톤즈 부임
- 2003. 12. KBS 1TV 「한민족 리포트: 아프리카에서 찾은 행복 - 수단 이태석 신부」 방송
- 2006. 1. 후원모임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 결성
- 2008. 11. 대장암으로 투병 시작
- 2009. 1. 후원모임 미주 아프리카 희망 후원회 결성
- 2010. 1. 선종(14일 오전 5시 35분)
- 2010. 1. 전남 담양군 천주교 광주교구 공원묘원 내 성직자·수도자묘역 안장(16일)

## 수 상

- 2005. 11. 제7회 인제인성대상 특별상 수상
- 2007. 3. 제23회 보령의료봉사상 본상 수상
- 2009. 12. 제2회 한미자랑스런의사상 공동 수상
- 2010. 12. 제1회 한국방송공사(KBS) 감동대상 대상 추서
- 2011. 7. 제1회 국민추천포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 저 서

- 2009. 5. 저서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생활성서사)
- 2011. 7. 유고 강론 모음집 「당신의 이름은 사랑」 (다른우리)

# Program

---

개회와 내빈 소개

인문사회의학교실 주임교수 김택중

인사말

학장 이종태

축 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원장 이연재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장호

경남고등학교 교장 정대호

(사)수단어린이장학회 이사 위계평

---

1부 이태석의 후예

길을 찾아서

예수회 수사 · 인제의대 20회 졸업 남정수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개발협력협동조합 빙고 대표 · 제8회 이태석봉사상 수상 권기정

---

2부 좌담회 : 이태석에 대한 기억들

사회 김택중

영화 「울지마 톤즈」 감독 구수환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신경숙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양종필

---

폐회, 기념촬영

---

# 1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40주년 기념 | 제8회 이태석기념심포지엄

## 이태석의 후예

# 길을 찾아서



## ■ 남정수

예수회 수사 · 인제의대 20회 졸업

- 2004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사
- 2005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턴 수료
- 2009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외과 전공의 수료, 전문의 취득
- 2009-2012 KOICA 국제협력의사 복무 (탄자니아)
- 2012-2014 서울아산병원 간담체외과 전임의
- 2014 예수회 입회
- 2019 예수회 중간실습기 파견 (상계백병원 내과 전공의 과정)

## 길을 찾아서

저는 98학번 20회 졸업생 남정수(토마스 아퀴나스) 수사라고 합니다. 저는 졸업과 동시에 부산백병원에서 인턴과 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고, 2009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군 복무를 대신해 KOICA 협력의사로 탄자니아 수도인 다레살람의 작은 정부병원에서 외과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3-2014년 2년간 서울아산병원에서 간담체외과를 전공했습니다. 그 후 예수회라는 가톨릭 수도회에 입회하여 수도자(수사)로 살고 있습니다.

2년간의 수련기(군대로 비유하면 훈련소와 비슷한 과정입니다)와 철학기(철학석사과정)를 마치고, 지금은 수도회 내에서 3년간의 중간실습기를 대신해 상계백병원 내과 레지던트 수련중입니다(올해 내과 1년차입니다).

제가 '길을 찾아서'라고 거창하게 제목을 붙이긴 했지만, 저에게는 '참 행복'을 찾는 여정이자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길을 찾고 걸어간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수도자(修道者)라는 말의 뜻을 풀이하면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수행이라는 말을 쓰는 불교의 스님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교의 스님(승려)이 스스로 깨달음을 찾는 데 반해, 저와 같은 가톨릭 수도자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the way, 삶의 방식)을 닦으려 하는데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저희는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살면서 그 '길'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실례로 저희는 수도회 입회 초기 2년을 제외하고는 수도복이 없이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차이가 없지요. 저희 수도회 금언 중에, 수도복이 '수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도자'가 수도복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일반인과 같이 살아가면서 수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수도자의 길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데 있어 이태석 신부님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물론 어릴 적부터 막연히 신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의대에 들어오면서 그러한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과 1학년 때 백병원 원보에 이태석 신부님을 그리워하는 한 병원 직원 분의 글이 실렸답니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신부님이 전방 군의관으로 복무하실 때 신부님께서 그 직원 분(아마 병사였던 것 같습니다)에게 아주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기억을 풀어 놓으셨고, 놀라운 사실은 지금(2000년 당시)은 사제(신부) 서품을 앞두고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학교 선배님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더군다나 아프리카 남수단에 자원하여 가셨다는 데서 더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저는 용기를 내어 신부님께 메일을 보냈고, 신부님께 답메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아주 짧게나마 신부님을 직접 뵈 기회를 두 번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허락된 시간이 짧아 깊은 대화를 나누진 못했지만 신부님과 같은 길을 꿈꿀 수 있다는 데서, 그리고 그 길을 걸으려는 까마득한 후배를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격려가 디딤돌이 되어 저는 서른 일곱이라는 늦은 나이에 수도회에 입회하여 수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는 받았지만 저는 신부님 발끝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행복한 '삶'을 찾아 도피했다는 생각도 가끔 하곤 합니다. 한때는 신부님처럼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내 온 생애를 바쳐 봉사하겠다는 꿈에 젖기도 했지만, 탄자니아에서의 3년의 생활이 제가 얼마나 모자라고 나약한 사람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떠나면 제3세계 국가의 오지에서 봉사하라고 초대가 들어온다면 흔쾌히 "예"하고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부족함과 나약함을 알기에 이제는 더 하느님께 도움을 청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길' 혹은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더 낫다거나 못하다거나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수도자가 아닌 길을, 곧 평범한 의사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보다 불행했을까 상상해 보는데 그 나름으로 저는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수도자라는 독특한 삶의 형태를 살게 된 것은 하느님으로부터의 부르심과 저 나름의 응답이 있었기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드리기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짧은 제 경험으로 드릴 수 있는 작은 메시지가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길을 찾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 ■ 권기정

개발협력협동조합 빙고 대표 · 제8회 이태석봉사상 수상

- 2001-2002 아프가니스탄 긴급구호사업 총괄
- 2003-2004 르완다 지역개발사업(보건,교육) 재건복구사업 총괄
- 2006-2009 에티오피아 지역개발사업 지부사업 총괄
- 2009-2010 이집트 지역개발사업 지부사업 총괄
- 2010-2011 아이티 긴급구호사업 지부사업 총괄
- 2012-2015 남수단 재건/지역개발사업 지부사업 총괄
- 2017-2018 호이(HoE) 대표
- 2015-현재 개발협력협동조합 빙고(BINGO) 대표

2019년 이태석기념심포지엄

##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협동조합 빙고(BINGO)  
대표  
권기정

### 순서

- I. 국제개발협력과  
NGO는 무엇인가?  
(상식에 관한 고찰)
- II. NGO의 변화와 미래  
(상식의 변화)

권 기 정 원고 계속

## 2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40주년 기념 | 제8회 이태석기념심포지엄

### 좌담회 : 이태석에 대한 기억들





### 구수환

전 KBS 프로듀서  
KBS 「추적60분」 책임PD 겸 MC, 「KBS스페셜」 PD 역임  
영화 「울지마 톤즈」(2010) 감독  
2011 휴스턴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대상 수상  
현재 중헌메디텍 미디어사업부 프로듀서  
구수환 PD와 함께하는 저널리즘 스쿨 대표



### 신경숙

2001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사  
2006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졸업, 의학석사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료, 전문의 취득  
2007-2008 남수단 톤즈 살레시오회 진료소 봉사  
2010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임상강사, 전임강사  
현재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 양종필

1988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사  
1992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턴 수료  
1996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수료, 전문의 취득  
현재 남산정요양병원 병원장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운영위원

## 사회

---



### 김택중

2001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사  
2008 인제대학교 대학원 졸업, 의학석사  
2012 인제대학교 대학원 졸업, 의학박사  
현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주임교수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소장  
대한의사학회 대외협력이사



(47392) Bokji-ro 75, Busanjin-gu, Busan, Korea  
TEL: 051-890-6625 FAX: 051-895-1864  
Homepage: <http://med.inje.ac.kr>